

# 대형 공원에 나타나는 현대 공원 설계의 쟁점

박선희\* · 배정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생태조경학전공 · \*\*서울대학교 조경 · 지역시스템공학부

## I. 들어가며: 복잡한 대형 부지의 등장

최근 10년간 진행된 설계 공모를 살펴보면, 현대 조경이 산업 사회의 잔해인 폐 공업 부지, 쓰레기 매립지, 군 기지 등의 교란된 부지(disturbed site)<sup>1)</sup>와 만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쓰레기 매립지를 공원화한 프레쉬킬스 파크(Fresh Kills Park), 비행기지가 폐쇄된 자리에 형성된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Orange County Great Park), 용산 미군 기지가 이전되면서 계획될 용산공원 등이 바로 그것이다. 이들은 과거 산업사회에서의 명성은 잃었지만, 공원화 과정을 통해 다시금 도시의 발전과 재생을 꾀하는 작동하는 부지로 거듭나고 있다.

그렇다면 이들 부지가 도시에서 새로운 의미로 작동하게 되는 원인은 무엇인가? 최근의 다양한 논의 속에서 이에 대한 주요한 원인으로 부지의 규모(size)가 거론되고 있다. 조경가 줄리아 처니악은 500에이커가 넘는 대형의 공원 부지들이 복잡성(complexity)을 생산하는 능력이 있다고 말한다(Czerniak, 2007). 그 복잡성이라 함은 부지가 도시와 얽여 있는 물리적, 생태적,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쟁점 등을 의미하는데, 이처럼 도시와의 역학 관계 속에 있는 대형 부지는 도시에 최적화된 설계안을 요구한다. 따라서 현대 조경은 과거 반도시적 이데올로기의 목가적인 경관을 연출하는 것에서 더 나아가 도시와 위이고 호흡하며 작동하는 경관을 연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실례로 우리는 각종 매체를 통해 축구장의 250배 규모인 용산공원 부지가 정치적·역사적 문제, 군 시설에 의한 환경 생태적 문제, 경제적 부가 가치와 부지 활용 방안에 대한 시민 참여의 문제 등으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sup>2)</sup> 많은 이들은 이러한 문제들이 이 대형의 부지 안에 녹아들어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는다. 그리고 센트럴파크의 규모와 견줄 수 있는 2,458,000m<sup>2</sup>의 대규모 용산공원 부지를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를 묻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필자는 우선 이와 같은 대형 부지의 복잡성들이 도시와 공원의 관계에 어떤 새로운 함수를 제시하며, 이 속에서 한계점은 없는지를 고찰한다.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이러한 변화된 양상 속에서 설계가들은 어떤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지를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대형 공원의 쟁점

대형 공원의 가장 큰 쟁점은 분명 “대형”이라는 물리적 요소이지만, 그것의 “복잡성”은 보다 다층적인 비물리적 쟁점을 낳는다. 그렇다면 동시대의 대형 공원에서 대형의 비물리적 복잡성은 어떠한 양상으로 나타나는가?

최근에 제안된 대형 공원 중에서는 완결된 사례가 많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쟁점은 관련 서적, 기사, 설계안 등을 통해 살펴볼 수 있었는데, 이 중 여덟 명의 조경가와 이론가의 논의를 담은 『라지파크』는 다양한 시각의 논의를 포괄하고 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 다음에서는 이들의 논의를 토대로 필자가 분석한 대형 공원의 다층적인 비물리적 쟁점 세 가지를 다룬다. 첫째 시민사회로의 가속화와 개인에 대한 존중으로부터 오는 “공공성”의 문제, 둘째 환경오염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서 “생태” 문제, 셋째 조경의 예술성을 구현하기 위한 “미학”적 문제이다.<sup>3)</sup>

### 1. 공공성

현대 조경의 포문을 연 올름스테드(Frederick Law Olmsted)는 공원을 두고 “소통성(communicativeness)”이나 “일상의 문명화(commonplace civilization)”를 언급한 바 있다. 공원에 모이는 개인의 다양한 활동이 민주적 공동체의 출현을 이끈다고 본 것이다. 그러나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중반까지 공원은 여가 활동의 기계처럼 설계되어 공공 사회로서의 성격을 상실해왔다. 철저하게 일방적인 구조 아래 설계자와 이용자가 분리된 공원이 양적으로 증가하였다.

하지만 동시대의 대형 공원은 이러한 상황을 다시 역전시키고 있다. 대형 부지의 복잡성은 공원의 설계 과정에서 일방적인 구조를 허락하지 않는다. 일례로 오렌지 카운티 그레이트 파크는 대규모 비행장 부지의 사후 활용 방향을 놓고 여러 이해관계 집단이 충돌하여 주민 투표를 통해 조성된 공원이다. 이곳은 공원개발이 결정된 이후에도 공원 조성 비용과 공원 개발 기술을 마련하기 위해 민·관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였다. 토론토의 레이크 온타리오 파크(Lake Ontario Park) 설계 과정에서는 지역 사회 커뮤니티 회의를 통해 풍력 발전기의 설치

여부, 오솔길의 폐쇄 여부, 해변가 조성 여부 등을 논의되었다. 또한 프레쉬킬스 설계팀은 공원과 사업에 시민의 참여와 관심을 유도하기 위해 게시물과 버스 광고를 제작하기도 했다. 이처럼 대형 공원의 설계 과정은 부지와 도시, 이해관계 집단과의 역학 관계 속에서 소통을 이끈다. 공원의 공공성의 가치가 대형이라는 규모를 통해 다시금 재현되는 것이다. 이러한 설계 과정은 역으로 공공성의 가치가 동시대 대형 공원 설계의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 또한 보여준다. 대형 공원의 공공성으로 인하여 공원 설계 분야는 보다 유연하게 다학제적인 도구를 활용하여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다.

## 2. 새로운 생태학

동시대의 조경은 생태에 대한 새로운 아이디어와 직면하게 된다. 과거 우리가 이해했던 생태학은 결정적이고, 위계가 있으며 닫힌 계에 안정적인 선적 발달 모형(linear model of development)에 기인했으나, 생태계의 진정한 양상은 지속가능성(sustainability), 적응성(adaptiveness), 탄력성(resilience), 예측불가능성(unpredictability) 등으로 이야기되는 동적 변화(dynamic change)의 모델이었음을 인식하게 된 것이다. 이때, 생태에 대한 새로운 개념을 구현하는 장으로서 대형의 부지는 그 수용 능력이 뛰어나다. 반대로 대형 부지는 도시와의 역학 관계 속에서 마땅히 작동적인 생태계가 필요하다. 따라서 조경 분야는 대형 부지의 설계 과정 속에 열린 생태계를 구현하고자 했다. 실제로 2000년 토론토 다운스뷰파크(Downsview Park) 설계 공모는 설계 지침서에 “적응적이고 자기-조직적이며 열린 시스템과 합치하는 생태계의 해석”을 요구했고, 최종 후보 다섯 팀 중 네 팀은 이런 조건을 충족하는 언어와 프로그램을 이용해 정교하게 고안된 설계로 응답했다(Lister, 2007).

또한 새로운 생태 개념에 의한 설계안은 기존의 형식과 다른 마스터플랜을 도출하게 된다. 다운스뷰 파크 설계 공모의 당선자인 부르스 마우(Bruce Mau)의 “트리시티(Tree City)” 안은 “장기간에 걸친 식재를 지탱해 줄 토양을 준비하는 것에서 시작해 결과적으로 초지, 운동장, 정원, 다양한 용도의 1,000개의 소로 외에 25%는 숲으로 될 것”이라는 불확정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고 있고, 최종 후보 중 하나였던 제임스 코너의 “창발적 생태계(Emergent Ecologies)” 안은 공원을 2000년부터 2020년까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적응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전략을 제시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고정된 마스터플랜의 형식을 탈피해 장기적 관점에서 유연하게 형태를 만들어나가는 형식을 취한다.

## 3. 대안적 미

오랜 시간동안 많은 조경 작품이 배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현대 조경은 옴스테드식의 목가적 풍경을 크게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동시대의 조경가들에게 무료함을 넘어서서 새로운 향을 향한 갈증을 일으켰다.

이러한 시점에 등장한 교란된 대형의 부지는 그것이 크고 복잡하다는 점에서, 기존에 확립된 공원 설계의 미학적 전통에 도전하는 접근의 촉진제가 되었다. 이를 테면 폐 공업 부지에 조성된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Landchaftspark Duisburg-Nord)나 선유도 공원은 산업 시설물을 그대로 남겨둠으로써 새로운 경관을 연출하였다. 이들 경관에는 “이성적일 것이라는 기대를 깨뜨리는 감성적인 면, 정체불명의 감각적인 면”(배정환, 2002)이 존재하고, 이 공원은 “다양한 감각을 불러일으키는 장”(조경진, 2006)이 된다. 린다 폴락은 쓰레기 매립지에 설계되는 프레쉬킬스의 경관을 두고 숭고미(sublime)를 논한다. 거대하게 노출되는 쓰레기 언덕과 그 속에서 일어나는 생태적 교란은 사람들로 하여금 “통제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경험하게 한다(Pollak, 2007). 이들은 부지의 규모와 복잡성을 통해 설계자와 이용자 모두에게 풍경화식의 미학이 아닌 낯설고 새로운 미학을 제시하고 있다.

## III. 쟁점의 불확실성

이처럼 대형이라는 규모와 그것의 복잡성은 대형 공원을 통해 현대 조경에 어떠한 방향과 힘을 제공하고 있다. 이들 쟁점은 대형 공원이 도시적 맥락에서 작동하도록 하는 동력원인 동시에 공원을 형성시키는 매체가 된다. 그러나 이 복잡성은 비결정적이고 불확실하다는 점에서 오히려 갈등을 일으킬 수도 있다. 동시대에 다운스뷰 파크나 프레쉬킬스 파크 등의 대형공원 설계안이 조경 설계의 기저 모델로서 무수히 복제될 것으로 예측되는 이 시점에서, 이들 불확실성에 대한 논의는 필수적이지 않을 수 없다.

### 1. 공공성의 침식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형 공원은 큰 규모로 인해 다양한 성격과 기능을 담을 수 있고, 따라서 다양한 사람들의 수요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공공의 장이 된다. 전문가들은 대형 공원의 설계 과정과 조성 이후까지 다각도의 공공성을 기대하고 예측한다. 그러나 대형의 부지는 경제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하고, 상대적으로 미시적인 측면에 소홀하다는 점에서 공공성의 침식을 유발하고 있다.

이들테면 파리의 불로뉴 숲(Bois de Boulogne)은 그 일부가 회원 이외에는 출입을 금하는 민간 스포츠 클럽으로 바뀌었고, 뒤스부르크 노드 파크의 냉각 탱크는 스쿠버 다이빙 클럽에 가입한 사람들만이 얼마의 비용을 지불해야 이용할 수 있다. 이는 공원을 유지하기 위해 공공 기관이 민간 스폰서에게 그 책

임을 넘겼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존 비어즐리는 이러한 불가피한 사유화가 공원의 공공성이라는 가치를 침식하고 있음을 비판적으로 논한다. 그는 다운스뷰 파크 설계 공모를 다룬 CASE 시리즈의 한 챕터를 인용하여, 자본구조에 의해 사유화된 공공 공간은 사회조직을 관리하고 단속하고 있으며, 따라서 대중적·정치적·사회적인 상호 작용을 일으키는 데에 한계가 있다고 역설하였다(Beardsley, 2007). 또한 대형 공원의 개발 과정 중에는 그것의 부가 가치를 취하는 것을 놓고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는 지역이 뒤떨어진 지역 커뮤니티를 희생시키는 식의 횡포가 종종 발생한다. 이는 뉴욕의 배터리 파크 시티(Battery Park City)가 남부 맨하탄에 있는 개발 자본을 독점하였다고 주장하는 로잘린 도이치(Rosalyn Deutsche)의 의견에서 엿볼 수 있다. 맨하탄의 다른 지역에 있는 작은 커뮤니티의 주택과 공원이 대형 부지의 개발을 위해 희생 당한 것이다. 대형 공원을 위해 소규모의 부지가 희생 당하는 것은 타당한가?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우리는 생태적 공공성과 사회적 공공성과의 충돌도 경험한다. 크리스티나 힐(Kristina Hill)은 공원의 효과적인 생태적 기능을 위해 광대하고 견고한 생태적 지역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는데, 비어즐리는 이에 반문하며 그러한 지역은 관리가 어려운데다가 다른 프로그램을 최소화 시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설계자는 생태적 공공성과 사회적 공공성 중에 어떤 것을 취해야 하는가? 설계자들은 지금도 대형 공원의 공공성 앞에 놓인 수많은 불확실성의 기로에 서 있다.

## 2. 새로운 생태의 오류

“다운스뷰 파크가 중요하다면, 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고 있는가?”라는 기사가 2006년 캐나다의 언론 매체 토론토 스타에 실렸다. 이는 7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렇다 할 진행이 없다는 점에 대한 대중들의 냉소적인 분위기를 보여준다. 이는 대형 공원의 과정 중심적인 생태적 설계가 가져오는 불확실성을 가장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다. 새로운 생태학인 과정 중심의, 열린, 비결정적인 생태의 적용은 대형 공원 설계 마스터플랜의 형태를 비가시화하게 된다. 다운스뷰 파크의 공모 당선작인 “트리시티”의 마스터플랜은 가로와 수목 대신에 선과 도형이 교차한다. 이것은 계획안의 비가시적인 과정을 설명하는 가시적인 도면이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현상을 보고 있는 대중들에게는 불안울 줄 뿐이다. 이러한 과정중심의 설계안은 과거 맥하그(Ian L. Mcharg)의 생태적 조경계획 도면에서 나타나는 형태의 부재와 닮아 있다. 수잔나 드레이커는 “스테이튼 아일랜드에 대한 맥하그의 분석을 살펴보면, 나중에 제임스 코너의 프레쉬킬스 파크 플랜에서 발전된 형태로 나타나는 초기 개념이 분명하게 보인다”고 말한 바 있다(Drake, 2010). 이러한 현상을 미루어 볼 때, 동시대의 조경가들은 새로운 생

태의 구현이라는 미명 하에 형태의 부재를 허용한 점을 되짚어 보아야 한다.

환경의 날 제정 이후, 환경문제와 생태에 접근하는 조경 디자인의 태도는 꾸준히 갈등을 빚어왔다. 맥하그식 환경생태 계획과 피터 워커(Peter Walker)식 조경설계의 대립으로 일컬어지는 생태-디자인 이원론은 조경에 대내외적인 혼란을 일으켰다. 동시대 대형공원에서 보이는 이와 같은 형태의 부재는 비단 맥하그식의 접근을 답습하는 오류에서 더 나아가 극복되지 못한 생태-디자인 이원론의 모습을 반영하고 있다. 실제로, 볼로뉴 숲은 작동하는 생태계를 구현하기 위해 인적이 닿지 않도록 조성한 숲인 ‘매시프’와 잘 가꾼 잔디, 호수, 코트로 이루어진 ‘호티콜’ 이 두 개의 구성 단위로 이루어져 있다. 사람들은 이곳에서 각각의 목적을 위해 조성된 두 개의 공원을 목격할 수밖에 없다.

## 3. 대안적 미의 위선

포스트 인더스트리얼 사이트(post industrial site), 브라운필드(brown field)로 일컬어지는 교란된 부지에 형성된 대형 공원은 산업 사회라는 인간사의 거대 서사를 노출시킴으로써 기존의 경관과는 다른 낯설고 새로운 경관을 연출한다. 공원을 찾는 사람들은 그것의 규모와 시간, 낯선 물성과 경관을 경험하며 승고를 느끼고 과거를 반성한다.

그러나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교란된 부지에 형성되는 대형 공원이 “인간의 이용이 안전하다고 여겨질 수 있도록 그 부지를 세척하기 위한 개선 과정에 초점을 둔다”고 말하면서, 이러한 특정한 초점은 “대형 공원이 그것을 둘러싸고, 그것을 이용하는 커뮤니티에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보여주는 데 실패”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건물과 기계를 영웅시하는 유희”에 이끌려 “소비의 역사보다는 생산의 역사에만 특권을 부여한다”는 점을 지적한다(Meyer, 2007). 즉, 거대 서사의 승고는 경험된 자아로 하여금 소극적인 반성에 그치도록 하며, 결국 환경 오염이라는 “통제될 수 없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 직면하는 것을 또 다시 회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마이어의 지적은 대형공원의 거대 서사 담론의 위선을 드러내는 동시에, 대형공원의 진실된 승고를 경험하게 하는 자기 서사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한다.

## 4. 불확실성의 함의

다양역간의 참여를 발생시키고 도시적 맥락에서의 작동에 피하는 대형 부지의 강점은 경제적 독립성의 부재와 거시적인 디자인 접근 방식으로 인해 오히려 공공성을 침식시키고 있다. 새로운 생태학은 공원의 광역적인 생태적 작동성을 취하는 대신 생태-디자인 이원론의 오류를 답습하는 결과물을 도출했다.

풍경화식 미학의 무료함을 탈피하는 듯 했던 새로운 미학은 승고를 가장한 인간 사회의 위선을 드러낸다.

이는 대형 공원의 개념과 가치가 현대 조경에서 매우 대중적이고 필수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상황에 따라 탄력적인 "대형"이라는 것의 성질과 규정하기 어려운 모호함에 대한 논의가 부족함을 여실히 보여준다. 위험한 것은 이러한 과정이 간과된 상태에서 지금도 이들 마스터플랜이 복제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대형 공원이 머지않은 시기에 도시와 사회에 교란을 일으키게 된다면 대형 공원에 대한 리콜은 누구의 몫이 될 것인가. 현대 조경은 대형의 부지가 도시의 장에 긴밀히 엮여 있다는 가능성이, 도시 작동에 대한 분명한 책임 또한 물을 것이라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는지 자문해 보아야 한다. 또한 대형이라는 거대 서사에 의해 가려진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는데, 반복되고 있는 조경 내부의 문제들, 이를 테면 앞서 언급한 확보되지 않는 공공성이나 생태-디자인 이원화의 문제, 거대 서사의 위선으로 인한 개인의 미적 체험 부재<sup>4)</sup>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 IV. 나가며

대형 공원은 현대 조경을 투영하는 거울과 같다. 산업 사회가 막을 내리면서 대형의 교란된 부지라는 새로운 국면에 직면하게 된 것은, 조경가들이 경관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하고 진화시키는 촉진제가 되었다. 도시의 변화와 도시 장의 변화를 예견한 조경 이론가와 디자이너들은 조경에서의 경관 개념이 도시의 맥락에서 작동하고 기능할 수 있는 방안을 놓고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Landscape Urbanism, Waldheim, 1997)과 같은 개념을 형성했고, 대형 공원과 같은 수행 결과물을 도출했다. 현대 조경은 대형 공원에서 드러나는 쟁점들과 긴밀히 엮여 있다. 물리적인 도시 표면과 사회상 간의 역학 관계, 더욱이 시급해지는 환경 문제와 도시화 문제에 대한 디자인 등 현대 조경은 이들 사안을 두고 끊임없이 진화하고 확장될 것을 요구 받는다.<sup>5)</sup>

논의를 마무리하며 다시 용산공원으로 돌아와, 우리가 체감하는 것은 현대 조경의 쟁점과 직면하고 있는 한국의 상황이다. 대형의 용산 공원이 도시 서술과 엮여 있는 양상은 무엇이며, 이를 조율하는 디자인 방향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과제로 남아 있다. 대형 공원의 디자인 쟁점이 북미의 물리적·사회적 상황에 의해 등장한 만큼, 그것이 한국 도시의 물리적·사회적 상황과 맞지 않는 부분이 존재할 것이다. 그러므로 대형 공원의

지역적 특수성에 대한 쟁점은 별도의 논의를 요청한다.

- 주 1. 엘리자베스 마이어는 『라지파크』의 에세이 「불확실한 공원들\_교란된 부지, 시민, 그리고 위협 사회」에서 "교란된 부지"라는 용어의 사용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필자는 이전에 산업 용지로 사용되어 더럽혀지거나 오염된 광범위한 범주의 경관을 설명하기 위해, "교란된 부지"라는 용어를 사용해 왔다. 이 부지들은 일반적으로 브라운 필드나 그레이 필드라고 불리고, 법적으로는 환경보호국에서 지정한 수퍼펀드 부지, 전문적으로는 새로운 제조 부지, 황무지, 독성 부지로 불린다"(Meyer, 2007).
- 주 2. 용산공원기본계획 참조.
- 주 3. 비슷한 맥락의 논의로, 제임스 코너는 대형 공원이 공원의 궁극적인 미덕인 풍부한 사회적 활동과 상호작용을 제공하는 장이 되고, 대도시의 삶을 풍요롭게 하는 녹색 허파로서 기능하며, 공원에 대한 대중적인 기대를 지배해 온 목가적인 모델을 대체하는 대안적인 이미지를 생산하고 있다고 말한다(Corner, 2007).
- 주 4. 마이어는 대형 공원이 연출하는 거대 서사의 위선을 지적하며 조경의 주요한 역할 중의 하나로 "신체적·미적인 경관 경험을 한 개인과 세계 사이의 관계를 구축하고 책임을 확립하는 수단으로 연관시키는 것"이라 말한 바 있다(Meyer, 2007).
- 주 5. 이러한 맥락은 다음 세 권의 책을 통해 확인해볼 수 있다. 『Recovering Landscape(1999)』, 『Landscape Urbanism(2006)』, 『Large Park(2010)』.

## 인용문헌

1. 배정환(2002) 시간의 정원, 발견의 디자인: 선유도공원이 전하는 말. *환경과 조경* 7(171): 84-89.
2. 조경진(2006) 기억의 공간 만들기: 선유도공원 디자인의 의미, 월간 *환경과 조경* 편집부. PARK SCAPE 한국의 공원.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284-289.
3. Bearsley, J.(2007) "Conflict and Erosion: The Contemporary Public Life of Large Parks"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217-233.
4. Corner, J.(2007) "Foreword"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11-14.
5. Czerniak, J.(2007) "Introduction: Speculating on Site"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19-35.
6. Drake, S. C.(2010) Term · Definition · Identity. *Topos* 71: 50-57.
7. Jacobs, J.(1961) *The Death and Life of Great American Cities*. New York: Random House.
8. Lister, N-M.(2007) "Sustainable Large Parks\_\_ Ecological Design or Designer Ecology?"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37-63.
9. Meyer, E. K.(2007) "Uncertain Parks\_\_ Disturbed Sites, Citizens, and Risk Society"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65-95.
10. Pollack, L.(2007) "Matrix Landscape\_\_ Construction of Identity in the Large Park" in *Large Parks*,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배정환+idla 역(2010). *라지파크*. *과주: 도서출판 조경*. pp. 97-133.
11. Waldheim, C. ed.(2006) *The Landscape Urbanism Reader*. New York: Princeton Architectural Press. 김영민 역(2007). *랜드스케이프 어바니즘*. *과주: 도서출판 조경*.